



제 4장

#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 속으로  
들어와 홍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거기  
서 그들은 진을 치고 어떻게 하면 이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의논했습니다.


바로는 자식을 잃어 한동안 슬퍼한 후 이전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노예를 풀어준 걸까요?



전차를 준비시켜라. 히브리 사람들을 추격하라! 모조리 죽이든지 다시 데려와.

예, 폐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5~7



저길 봐! 이집트  
군사들이 온다! 우  
리는 이 광야에  
갇혔어!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는군. 하나님께서 버려두  
신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  
리 노예로 사는 건데.



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  
이 있어. 우린 갈  
혔다구.

이젠  
하나님이 우리  
를 구해줄 길도  
없어.

이집트 군사들은 무력한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서, 또 모세 때문에 이집트가 겪은 고통을 기억하고서 적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  
님이 위대한 손으  
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한 번 더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 여  
러분은 이집트 군대를 절  
대로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히브리 사람들 위에 막 덮치는 것 같아 보일 때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히브리 백성에겐 빛이 있었지만 애굽사람들 쪽은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어와 바다가 갈라져 바다 밑바닥에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장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 위에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바다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 뿐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지요.





이집트에서 본  
어떤 것에도 비  
할 수 없는데.

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  
대하신 분이야! 우  
리가 지금 바다 한  
가운데 있잖아!



요시아!  
미쳤니? 당장  
이쪽으로 나  
와! 너 수영 못  
하잖아!



예쁜 물고기를 잡  
아보고 싶어요.

히브리 백성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막고  
있던 불기둥을 없애셨습  
니다. 그들은 바다가 갈  
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  
었고 히브리인들을 쫓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전진!  
히브리 사  
람들을 죽  
여라!






오늘 너희는  
여호와 의 능력을  
보았도다.

저것 봐! 물이  
다시 들어가고 있  
어! 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하지 못한 거지요.



시체들을  
보세요! 바다가 이  
집트 군사들의 시  
체로 가득합니다.


분명 여호와만이  
유일한 주 하나님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  
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 이 날을 영원히 기억  
해야겠다.

바다와 죽은 이집트 군대를 뒤로 하고 히브리 자손들은 모세와 구름기둥을 따라 넓디 넓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몇 일간 여행을 하고 나자, 그들을 인도한 구름기둥이 우물이 많은 곳에 멈추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 진을 치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구할 곳이라곤 없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지요.






이집트에 그냥 노예로  
머물러 있었어도 이보다  
음식도 충분하고 더 잘 살  
수 있었을텐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굶어  
죽으라고 우리를  
여기 데려온 건가?




들어보시오.  
여러분은 내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  
라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  
시겠다고 하시오. 매일 아침 양  
식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  
은 단지 그것을 주워서  
먹으면 되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음식을 어디서  
구하죠?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  
기, 매일 아침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대.



이제 곧 해 뜰 시간인데, 모세의 말대로 땅에 양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없으면 굶겠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모세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주의 창조주야. 하늘에서 양식이 내  
려오게 하는 건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자, 이제 시간이  
되었어. 어서 가 보자.

출애굽기 14:21~22, 30, 16:2~3, 16:7~8



그의 말대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어!

우리는  
대체 왜 의심  
을 할까?



봐! 온통 다  
깔렸어!

와! 정말  
맛있다! 꿀맛  
같아요!

진정 여호와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의 예언자야.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구름 기둥이 진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물가에서 지내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막을 거두어 싸고 구름 기둥을 따라 미지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물  
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그가  
양식은 주셨  
지만 이제 목  
말라 죽게 하  
시는군.

물을 빨리  
찾지 못하면 어  
린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냥 이집트에 있을 걸 그랬소.  
하루만 지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것이  
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 죽기 시작할 거요.  
돌로 당신 머리를 쳐야 마땅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요,  
아니요?

가서 하나  
님께 말씀  
드리겠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 뿐이오.



그는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셨고, 이  
제 이 쓸모없는 바  
위에서 물이 나게  
하실 거요.



따악!

으악!

출애굽기 17:5~6

물은 강 같이  
흘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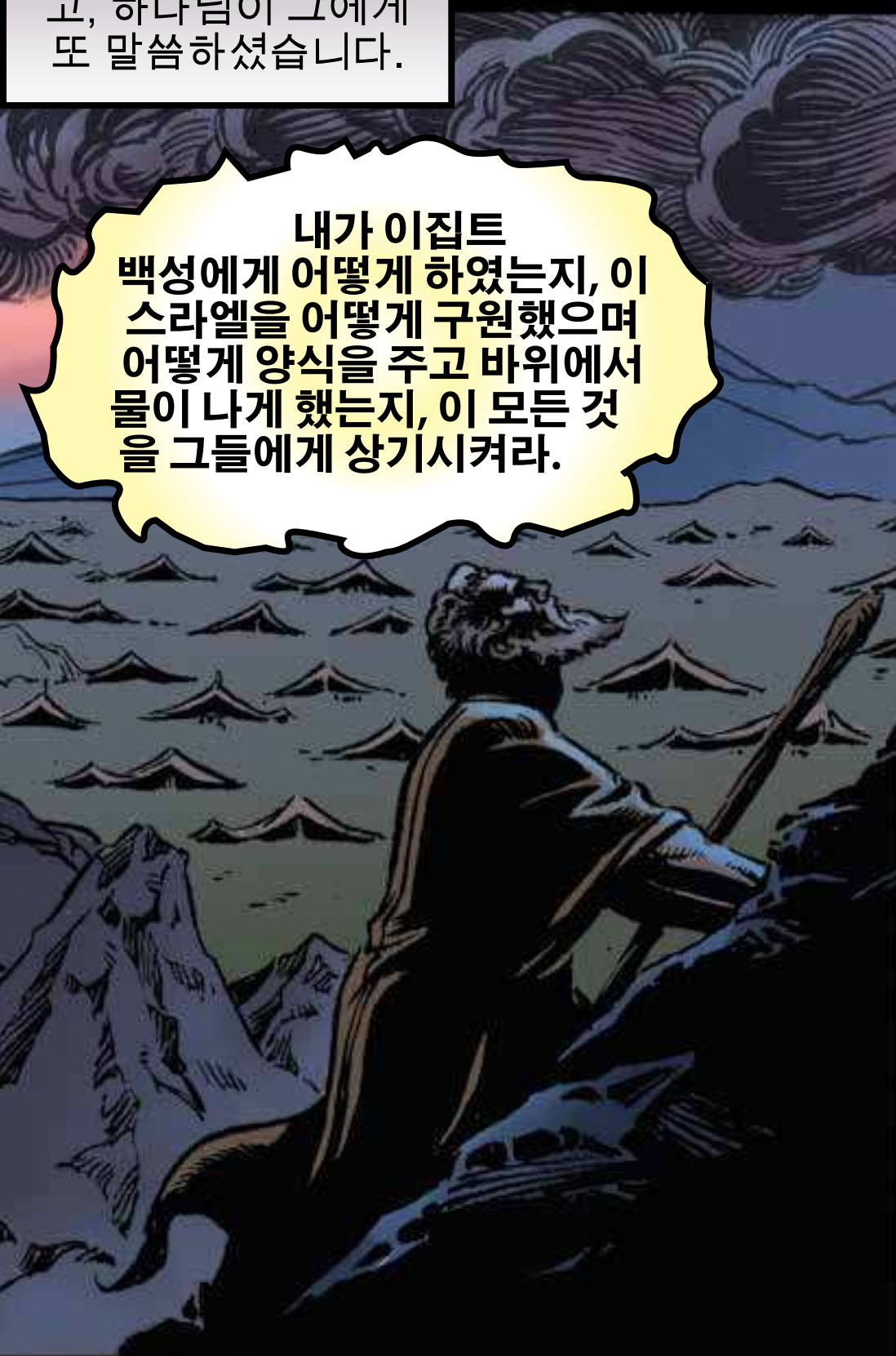




또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히브리 백성들은 짐을 싸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시내라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으며 어떻게 양식을 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했는지,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라.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내 계명을 따르면 온 땅 모든 족속 위에 특별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모세야, 내가 너와 말할 때 짙은 구름 가운데 오겠고 그래서 백성이 보고 듣고 나인 줄 알 것이다.

모세는 산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오. 삼일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삼일째 되는 날, 모든 백성은 산 앞에 모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구름이 산 위에 내려왔고, 그리고...




모세야, 산 위로 올라오거라.



모세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려가서 산  
주위에 울타리를 쳐라.

혹시 다른 사람이  
이 산을 만지면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줄 것이니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어떤 우상도 만들  
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이  
름을 진정과 진실함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매주 일곱째 날을 정하여  
내게 예배드리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  
아무와도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네 이웃이 가진 것들을  
탐내지 말라.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으고 하나  
님의 계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하  
겠습니다.

좋은 계명  
이군요.

여러분 70명은 나와 함께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하오. 하나님  
이 나를 만나신 것처럼 거기서 여러분도 하나님  
을 만날 것이오. 여러분은 직접 보게 될 것이  
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계명을 책에 써야겠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세심하게 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가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모세는 계명을 다 기록하고 나서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하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생명을 주고 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 의로움 가운데 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까지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벗  
어날 길을 마련하셨지요. 죄 없  
는 순결한 양을 죽여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이 마땅  
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  
이지 않으신 겁니다. 죽지 않아  
도 될 양이 죽어야만 했던 죄인  
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죄가 덮였으니 여러분  
70명은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래서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를 따라 하  
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  
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70명의 장로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아름답다!


이 영광!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모세야, 백성을  
시켜 성막을 만들어  
거기서 내게 예배하게  
하라. 그 안에 제단을 쌓아  
그 위에 제물을 바치게 하고  
성소를 만들어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내가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게 하라

성막을 만드는 법은 상세히  
가르쳐 주마. 레위 족속이 내 제  
사장이 되겠고, 아론과 그의 후  
손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들이 백성에게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제물을 바칠 것이다.






모세가 산 위  
저 불 속으로 들어  
간지 벌써 몇 주가  
지났어. 지금 짬  
죽었을거야.

맞아, 우리도 평생  
이 광야에 주저앉을  
수는 없어.

모세처럼 우  
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금으로 우  
리 하나님  
의 형상을  
만들어요.





모세는  
죽었소. 아론이  
우리를 이집트  
로 다시 데려갈  
금신을 만들어  
줄 거요.

자, 금을 다  
주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소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사탄의 원 형상이 바로 황소의 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소의 상을 만들 마음을 불어넣은 거지요.

아론은 백성의 소원을 따라 금으로 신을 만들게 도와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4, 25:8~9, 28:1~3, 32:1~4; 에스겔 1:10, 10:11, 28:14

아론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그 형상이 하나님인 아님을 알  
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내  
일 큰 제사를 선포하고 여호  
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아론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그 형상이 하나님인 아님을 알  
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도와줄 도구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상을 따라왔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벌거벗고 춤을 추며, 술에 취해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멸하여 악마와 악마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불 안에 던지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라. 백성이 큰 죄를 지었다. 그들이 벌거벗은 채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구나. 내가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구나. 올바른 길로 행하지 않는구나.”

출애굽기 32:5~10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  
겼다!



모세는 계명이 새겨져  
있던 돌판 둘을 땅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더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이 너희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느냐?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3~4, 32:15~20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편이라면 나와 함께 서  
시오. 이집트의 신을 경배  
할 거라면 그 자리에 그  
냥 있으시오.

나는 비록 형상이  
없더라도 홍해를 가르  
신 하나님을 차라리  
따르겠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겠소.



죄의 벌은 죽음시오.  
여호와께서 저들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오. 이제 칼  
을 뽑아들고, 예배를 돕기 위  
해 우상을 사용하는 자를 모  
두 다 죽이시오.



그 날, 3천명의 우상  
숭배자와 간음한 자  
들이 죽었습니다.

**숙!**


안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출애굽기 32:26~28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돌 판 두 개에 십계명을 다시 써 주셨습니다. 모세는 산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은 그 계명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세어  
반항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여러분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  
하였고 그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실  
것시오. 여호와와는 진정으로 자비롭  
고 용서하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을 주셨소. 그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지으면 그가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소.


레위 족속이 매일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릴 것이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의 피를 보시면 이집트에서처럼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이요.

이렇게 해서 성막은 완성되었고 제사장들은 매일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제사로 드리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항상 불평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불평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 dramatic illustration of a camp at night. Several large, dark snakes with glowing eyes are coiled around the camp. In the foreground, a large snake is coiled on the ground. In the background, a tent is lit from within, and several people are visible. One person is pointing towards the snakes. The sky is dark with some light clouds. A speech bubble is positioned in the upper left, and a text box is in the lower left.

까악! 저기  
봐요. 뱀이에요...  
...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독사를 많이 마련해 따뜻한 사람의 살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4:28~32, 39:32; 민수기 21:5~6






곧 진은 많은 독사  
로 우글거렸습니다.



하나님, 살  
려주세요!

독사는 밤에 그들이  
자는 천막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A man with a beard, wearing a brown robe and a head covering, is shown in a state of distress, leaning against a blue curtain. He is looking towards a woman on the right. The woman is kneeling on the ground, wearing a light-colored dress and large orange earrings, and is working with several bundles of sticks or reeds. A snake is visible on the ground near the woman. The scene is set inside a tent with blue curtains and a purple sky visible through the opening. A speech bubble from the man contains the text.

뱀에 물렸어. 살려줘.



안돼!


요압아, 안돼!

어머니!



아이들조차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  
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1:6



진 곳곳에서 고통과 슬픔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죄의 대가는 끔찍한 것이지요.

진 전체가 이와 같고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요.


모세를 찾아야만 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백성의 죄 때문에 노하신거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벌을 받아 마땅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고 부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근엄하게  
보신다는 것을 사람들  
이 언제나 알게 될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  
여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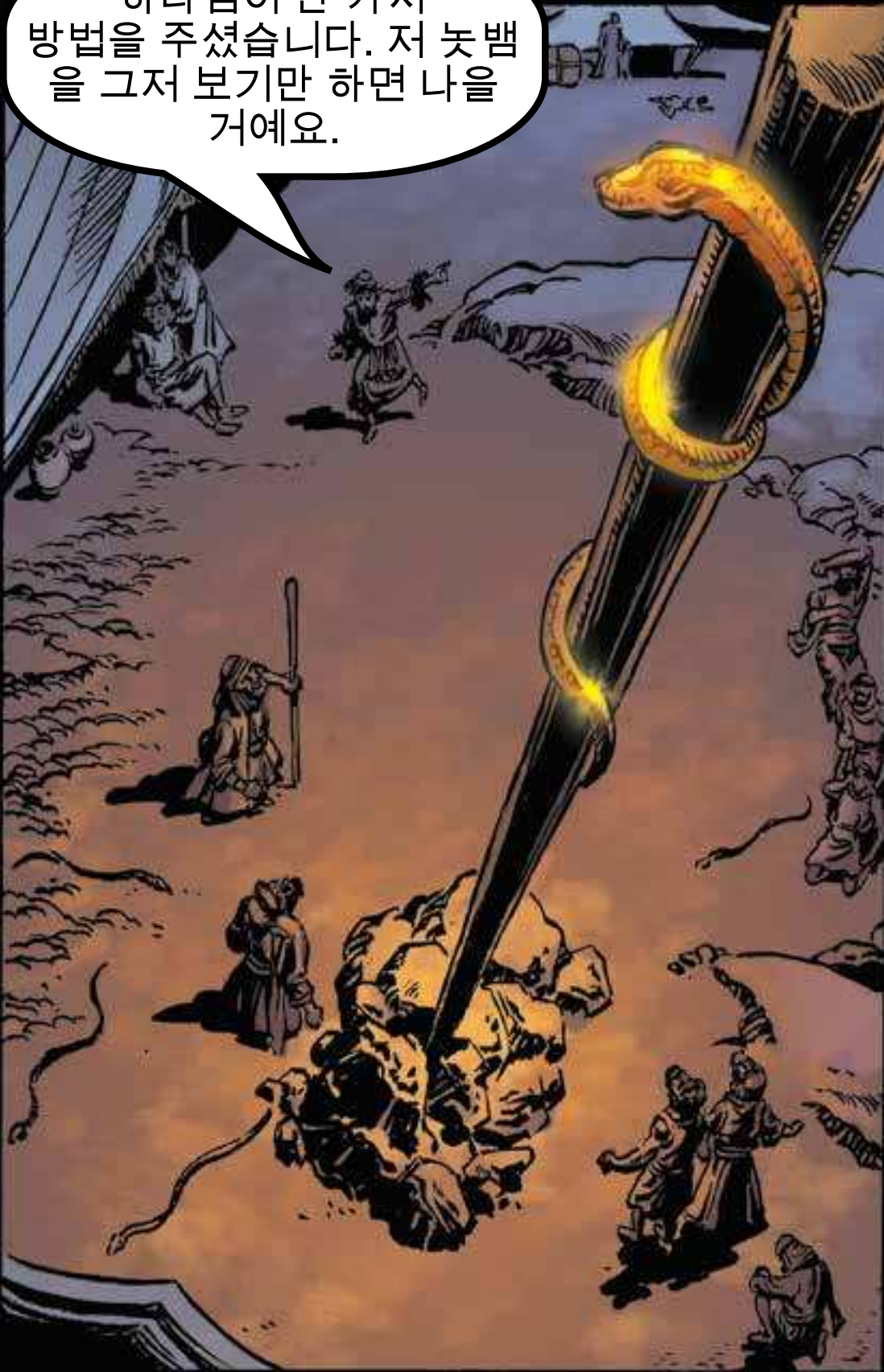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  
오. 그들의 죄를 용서  
해 주십시오.

가서 사람들을 무는  
뱀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 모  
든 사람이 보게끔 장대 위에 달  
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저 놋  
뱀을 올려다보기만 하라고 해  
라. 그러면 그 즉시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저 뱀뱀  
을 그저 보기만 하면 나올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눈을 뜨  
고 보기만 하세요.  
보고 사십시오!



이건 기적  
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겠어.

내가 나왔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지.



보고 사십시오!


민수기 21:9



왜 거짓말로 이  
사람을 놀리나  
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온전히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게 안 보이는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로  
나를 괴롭히나?



죽었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 안됐  
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했  
어요.

다시 한 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독사에게서 멀리 떠나 다시 진을 쳤고 삶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겠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9, 32:13




모세, 당신은 오로지 당신만이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고 있소. 우리도 당신만큼 거룩하오. 아니, 온 회중이 다 거룩하지. 이제 우리 가운데 죄인은 더 이상 없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당신과 아론은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될 필요가 없소. 우리도 당신들처럼 잘 판단할 수 있소.

그래, 난 이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는 것과 사소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릴 죽이시는 게 다 지긋지긋해.

그래, 이걸 다 모세 탓이야. 그의 기준이 너무 높아.

모세는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너희는 너무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정하시기도 전에 제  
사장이 되려 하는구나.”

내일 주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을 내리시면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누가 거룩하고 누가 아닌  
지 가려낼 것이요. 내일 아침 성막으  
로 향로에 불을 넣어가지고 오시오.

민수기 16:2~6



그 다음날,

당신들, 거룩하다  
자칭하는 자들이여, 제사장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려 하는 자  
들이여, 가까이 오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선택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힘과 그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 악한 자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 내가 곧 이들  
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천막에서  
멀리 떠나가라. 그들에게  
가까이 오면 너희도 그들  
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것은 시험이요.  
만일 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죽는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  
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이해해도 좋소.



그러나 오늘  
만약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 소유물을 모  
두 지옥으로 삼킨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내가 그  
의 선지자임을 당신들  
이 알 것이요.




살려줘!

아아아악!

안돼!




제사장이 되고 싶어했던 사람들은 모두  
산 채로 악마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 불로 떨어졌습니다.



저들의 낯 향로를 거두어서 제단을 덮는 덮개를 만드시오.

제단을 덮은 낯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 했던 이날을 기억할 것이요.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선지자인 것과 그가 정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성막 위에 머물렀고 사람들은 기꺼이 모세를 따라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잠해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성막의  
일을 돌보고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누워서 조용히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종말이 되어 다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때까지 그는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약 B.C. 1451년경 – 신명기 34:4~5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민족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밟으라고 부르신 날로부터 거의 5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아들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열두 지파가 되었고 거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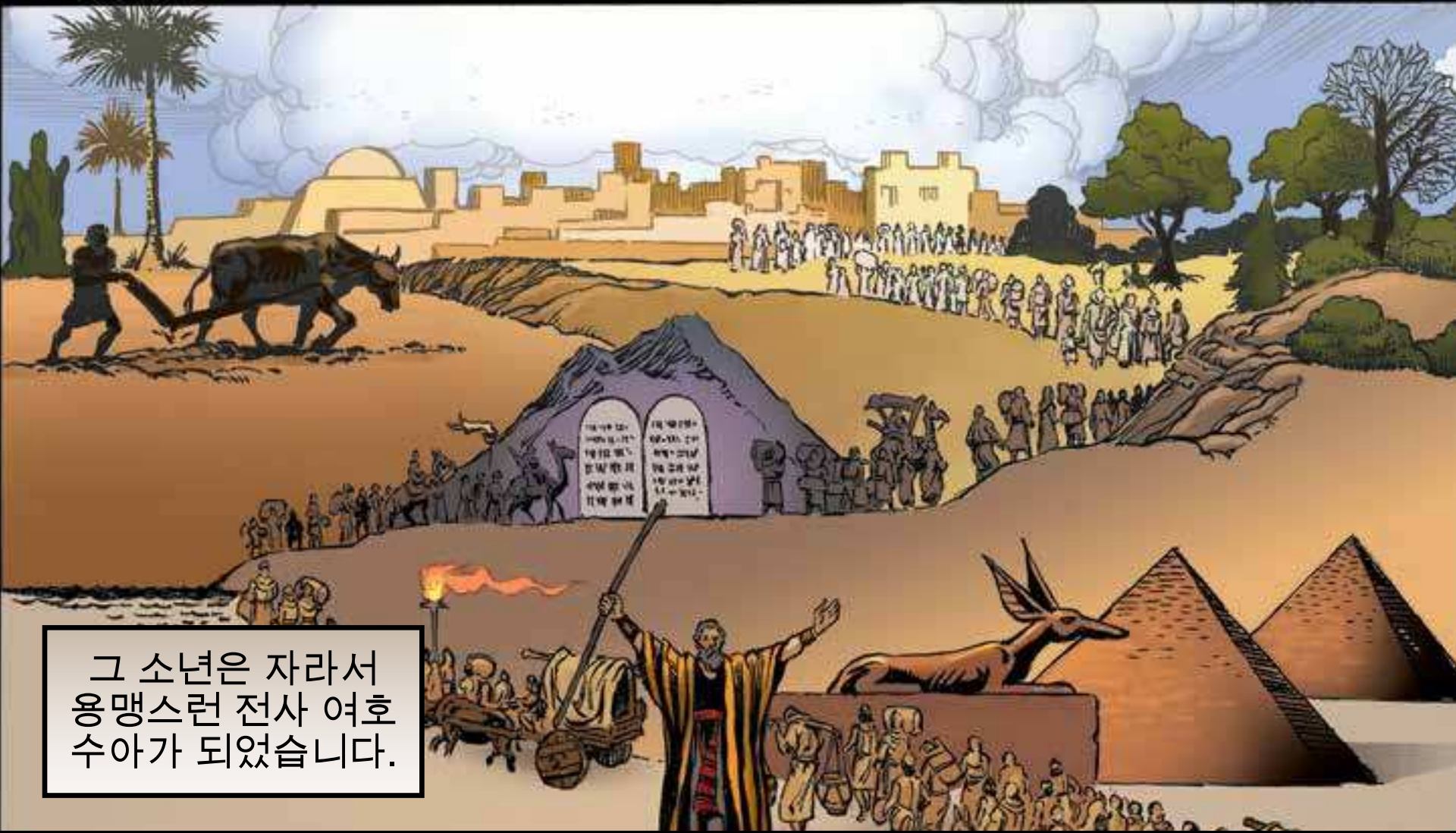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아들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열두 지파가 되었고 거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생활에서 나와 모세와 함께 사막을 떠돌아다녔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며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줄곧 모세 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지 지켜보고 배워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용맹스런 전사 여호  
수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떠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선택  
되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  
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  
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 다  
른 나라에 살다가 400년이 지난 뒤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  
이라는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하나  
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신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던 날,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는 그쳤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난 신선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보, 하나님 정말 좋은 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아이들을 키우며,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기에 좋은 곳이야.

신명기 34:9; 여호수아 5:12



<https://goodandevilbook.com/>